濟州島硏究 제36집
2011. 8. pp. 191~200.

[서 평]

‘중심’과 ‘주변’의 문화 변증법적 논리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사, 2011년 발행)

한창훈*

1.

어떤 인연이 되었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의 서평을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기회가 있다면 내가 서평을 쓰고 싶었다. 아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특유의 털털함으로 받아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작용한 것 같다.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허남춘 교수의 활약상을 지켜보았던 나로서는, 우선 서평과 상관없이 많은 이들이 특히 우리 제주인들이 이 책을 꼭 읽어 보았으면 한다. 하여 서평 형식의 이 글이, 이 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 전북대 국어교육과 교수

정확한 고향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허남춘 교수는 강원도 사람이다.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고[1],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하면서 고전시가를 전공했다. 지도 교수는 우리나라 고전문학 연구사에 한 획을 그은 임하 최진원 선생이다. 그런 허남춘 교수는 제주대학교에 부임하면서 무가를 포함한 제주 신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서문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옮겨 본다. "제주에 와서 20년을 살았다. 원래 고전시가가 전공이었는데 신화의 바다에 들어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신화 속에 빠져들었다. …… 제주 신화는 너무 엄청나서 단시일에 그 신비를 알아낼 수 없다. 그리스·로마신화보다 폭이 넓고 깊다.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이유는 언어 때문이다. 제주어는 정말 외국어 수준이다."

고향이 제주도 조천인 나도 제주어는 외국어 수준이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맛을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고, 힘들게 파악하더라도 이를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맛깔나게 전달하기 힘들다. 그런데 나는 긴 시간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살면서, 지속적으로 이에 학문적 관심을 가졌던 허남춘 교수의 자세에 주목한다. 아무리 전공에 가까운 분야라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삶의 배경과 이질적인 내용을 20년 이상 주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나도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일임을 절감한다.

허남춘 교수의 이번 책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물론 모든 책이 공짜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이처럼 자신의 성장 배경과 다른 문

1)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소설가 최수철 씨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알고 있다. 언제 부탁해서 사인을 받을 생각이다.

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연구 성과로 집약해 출판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오히려 당연한 일에 속한다. 점점 사라져 가는 제주도 무가 본풀이를 채록하고 이를 출판한 일은 허남춘 교수의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증좌가 된다(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2009; 2010).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작업에 많은 제주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참여 했다는 점이다. 다른 대학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직해 지역 문화 정리에 나섰다는 것은 허남춘 교수의 열의는 물론이거니와 나름의 행정력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2)]

행정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운영에 대해 첨부해 둘 필요가 있겠다. 예나 지금이나 제주문화에 관한 한 권위 있는 기관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는 특히 허남춘 교수가 소장을 맡은 기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물론 당연히 역대 소장과 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학교의 지원도 있었겠지만, 특히 연구소의 얼굴인 학술지 『탐라문화』가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가 되었다거나, 탐라문화학술총서[3)], 탐라문화총서[4)] 등의 활발한 출판 등은 주목되는 바 있다. 이런 과정을 알고 있는 나는 책의 서문에 있는 다음의 언급을 신뢰한다. "나도 너무 급히 달려왔다. 주변에 상처를 주기도 했다. 깊이 반성한다. …… 탐라문화연구소장으로 소임을 다했다.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학생들과 더 잘 어울리고 더 열심히 연구하겠다. 그 동안 연구소 일을 하면서 탐라문화에 대

2) (내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명한 외부 강사들을 초빙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음도 기록해 두고자 한다. 나는 이후 실제 강의에 참여 했던 조동일, 김대행 교수의 전언을 들은 바 있다.

3) 현재 12권이 발간되었으며, 4권부터는 보고사에서도 구할 수 있다.

4) 현재 24권이 발간되었으며, 19권부터는 보고사에서도 구할 수 있다.

한 애정을 키웠었다.”

2.

이제 책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선『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라는 제목이 눈에 띈다. 제주 신화의 대표를 본풀이라고 규정하고, 제주 바깥쪽의 신화를 주변 신화라 한 것이다. 허남춘 교수의 말을 빌면, ‘신화에 관한 한 제주가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주변이라 본’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제주 문화를 ‘주변부’나 ‘변방’으로 칭하는 연구는 보았으나, 이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를 ‘변방’으로 규정한 연구는 처음 보았다. 제주도 무가를 연구의 출발이자 중심에 놓았던 조동일 교수도 ‘중심’과 ‘주변’의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았다(조동일, 1997). 물론 이후 연구에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그 특유의 ‘생극론’이란 논리로 변화 가능성을 열어 두기는 했었다. 하여튼 나는 이런 명명법에서 제주 신화 및 문화를 보는 허남춘 교수의 기본 인식을 읽어 본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각 편의 논문들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적출된다.

이 책은 6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전체 1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글의 성격은 대부분 논문들이지만, 몇 편의 경우에는 강연 원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다. 각 글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제주를 ‘중심’으로 놓고 문제를 분석하는 틀은 놀랍게도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점에서 내가 비판적으로 보기에, 대상에 대한 직관적 인식이 곧 그 연구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상에 대한 예찬에 빠지는 것은 항상 위험

할 수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역 관련 논문들은 이런 것이 많다. 제주의 경우도 예외라 하기 어렵다.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직관이라는 특수성을 과도하게 적용한 논문들이 많다는 것이다. 경험상 이런 논문들은 구체적 기여도가 굉장히 낮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 문제의 경우, 이런 논문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시야를 넓히면 한국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족문제이든 경제문제이든 문화문제이든 한국의 특수성을 직관적으로 과도하게 밀어부치는 논문 치고 좋은 논문을 찾기 힘들다(한창훈, 2009: 245-246).

물론 허남춘 교수는 풍부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상당 부분 근거 자료로 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관련 자료의 특성상 항상 양면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무시될 수 없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라는 전제는 논리적 귀결을 맺기 어렵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것이다. 지역 연구의 경우, 특수성을 그 기반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직관적 특수성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며, 보편적 인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제주 방언이 아무리 특이해도 그것이 일본어나 중국어는 아니지 않는가? 내가 조동일(전 서울대)의 작업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육지 출신의 서울대 교수가 제주도 무가를 높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제주도 무가를 거시적 시각에서 일관되게 해석하려는 자세 때문이다.[5] 지역 문제에 대한 조동일의 미시적 인식 오류를 찾아내기는 쉽다. 그러나 그걸로 논리적 공격 논리를 세우기에는 조동일 교수의 보편적 인식에 대한 신뢰가 더 깊다. 김헌선(경기대)의 일련의 연구도 그러한데, 육지 사람이 제주에 대해 가지는 애정과 관심

5) 조동일의 제4판『한국문학통사』1권의 전체 서문을 보라. 구체적으로 탐라(제주)에 대한 그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그 보편적 인식 태도가 더 소중하다고,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이런 나의 생각도 기본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곤란하다. 어떤 인식을 참이나 거짓으로 규정하기에는 제주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근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남춘 교수가 견지하는 시각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논문들 곳곳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논리를 보강하려는 노력이 보임은 같은 분야 연구자로서 신뢰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앞서 '특수성'과 '보편성'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도 '비교' 연구만한 것이 없다. 물론 제주라는 대상을 한정하고 그것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도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혹은 통합적 접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친다면, 우리는 제주라는 학문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없다. 하여 무한한 예찬론 아니면 의도적인 외면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 연구는, 그 대상의 특성을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 대상과의 상대적 거리를 통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교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현상이나 현상의 집합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실질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주체와 객체의 문제도 있고, 비교의 준거 설정이라는 문제도 있다. 여기서는 인식의 '방법론'으로서의 비교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인식과 방법론을 구별해서 논하는 이들도 있고, 이들의 논의가 더 정치하다. 여기서는 이를 다 다룰 여유가 없기에, 제주의 특성을 드러내는 유력한 방법론의 하나로 '비교'의 문제를 들

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허남춘 교수가 책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주 본풀이와 한국 신화 비교”라든지, “한국과 일본의 신화 비교” 등은 그 주목에 값한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들의 이런 개념화가 주로 서울 중앙 중심의 한국 문학과 이웃 나라 일본의 문학을 제주 문학을 비교한 결과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타자와의 비교가 전제될 때 주체의 모습이 더 선명해 진다는 것은, 적어도 이제는 상식적인 수준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 하여 비교 집단의 설정에 따라 또 다른 개념화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 당연히 이때의 비교 대상은 국내의 다른 지역도 될 수 있고, 국내를 벗어날 수도 있으며, 같은 지역의 시간적 비교도 있을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중심’과 ‘주변’의 문화 변증법적 논리를 잘 찾아내고 전개해 가야 앞으로의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

내가 보기에 이 책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잘 조망하면서 보여주는 글은 5장의 「제주문화 연구의 현황과 과제」와 「탐라문화: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다」로 보인다. 허남춘 교수는 특히 여기서 ‘주변부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제주학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탐라문화권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여기서 일일이 자세히 조망할 수는 없지만, 모든 내용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제주의 음식 문화를 논한 부분이 눈에 띄였다. 여기서 허남춘 교수가 제주일보에 제주 맛 기행을 1년 정도 연재한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그의 제주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의 이러한 제안들이 몇 몇 사람들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가 앞으로의 우리 과제라 하겠다.

3.

나는 소위 제주학을 하나의 지역학 내지는 지역 연구로 이해한다. 많은 이들 특히 전문적인 학자들은 '……학'이라는 명칭 부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격한 대상 선정과 구체적인 연구 방법론의 통일 등의 기본적 학적 요건을 갖추기 힘든 지역학을 지역 연구라는 말로 대체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나는 지역학이라는 용어에 별 거부 반응이 없고, 제주학이라는 용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여긴다. 전경수도 '……학'의 성립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어떤 하나의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하나의 學으로서 정리할 경우에는 지역의 명칭 뒤에 學이라는 단어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주도라는 하나의 특수한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칭할 경우에는 제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주라는 지역은 이미보편적으로 인식된 하나의 단위로서 지역이기 때문이다."(전경수, 1999)라고 했다. 이 경우, 이미 확립되어 있는 지역 연구의 방법론을 제주학에 원용하려는 입장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처럼 내 생각으로는 학문적으로 제주학이라는 분야는 성립 가능하며, 그 대상은 제주라고 하는 지역 전체가 된다. 이에는 공시적 접근과 통시적 접근이 가능하므로 제주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탐라'로 표현되는 과거의 모습도 적절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연구로서 제주학을 일단, '제주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장소나 문화에 관한 총체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이해를 증진하는 학문 분야'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듯하다. 최근의 지역 연구 경향에 따르면, "지역은 지식의 체계적 축적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분석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경일, 1998)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지역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 학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허남춘 교수의 역작『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를 읽으면서, 나는 인문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제주 신화 연구에서도, 이런 지역학적 연구 시각이 긴요함을 느낀다. 아니 신화 연구이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지도 모른다. 이 책을 다시 통독하면서 지난 20년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허남춘 교수의 제주도 사랑이 어느 정도는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본다. 이제 앞으로는 보다 많은 이들이 제주도 사랑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 신화는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 그 대상이 크지 아니한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에서 이들을 조직하고 이끌어 가는 허남춘 교수의 다음 모습을 보고 싶다.

참고문헌

김경일 편, 1998,『지역 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전경수, 1999,『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학교 출판부.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2009,『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사.
_____, 2010,『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사.
조동일, 1997,『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한창훈, 2009,『고전문학과 교육의 다각적 해석』, 역락.
허남춘, 1999,『고전시가와 가악의 전통』, 월인.
_____, 2010,『황조가에서 청산별곡 너머』, 보고사.
_____, 2011,『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사.